2026. 4. 27

금융 Weekly Insight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진 양호한 실적 개선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4월 다섯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대와 달리 지속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1.2%, 1.3%, 1.5% 하락. 주가 하락과 달리 지난 주 주요 은행계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발표.
-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KB금융의 1Q ROE는 14%까지 상승하며 수익성마저 개선. 한편, KB금융과 신한지주 산하 두 증권사 또한 전년동기대비 2배 내외로 이익이 성장, 증권업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
- Base Case 시나리오 상에서 증권 및 은행의 실적 개선에 초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 빠른 변화 속에서 Re-rating이 가능한 기업에 보다 초점이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과 비은행 쌍끌이 실적: 은행주는 1.2% 하락. 하지만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은행들의 실적은 양호한 개선세를 확인. 특히, 은행과 비은행 모두 견조한 실적 개선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머니무브로 인한 은행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반면, 은행계 금융그룹은 관련 추세 하에서의 수혜를 챙길 수 있음을 시사. 더 나아가, KB금융이 1Q 중 ELS 관련 추가 충당부채에도 불구, 14%의 ROE를 기록하는 등 은행들의 ROE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주목 필요. 은행들이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ROE 상승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비록 연간 ROE는 연말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과거 은행의 ROE는 10%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도 초점 필요. 한편, 지난주 실적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역대 최대 분기 실적과 더불어 자산재평가를 통해 한 개 분기만에 CET-1 비율이 70bp 상승, 업종 내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한 우리금융에도 초점 필요.
- 증권 – KOSPI 상승에도 불구 하락: 증권 업종 주가는 1.3% 하락하며 이례적으로 KOSPI 상승 흐름(w-w +4.6%)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음. 핵심은 실적 시즌 본격 진입에 따른 차익실현 니즈 확대로 판단. 1) 증시 거래대금의 경우 Daily 기준 데이터 트래킹이 용이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1분기 호실적은 대부분 예견된 상황에서, 2)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박스권이 지속되며, 4월 거래대금이 3월 대비로는 소폭 정체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판단.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5.0%)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의 차익실현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다만 중장기 머니무브 관점에서 성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라면, 실적 시즌 전후를 기점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보험 – 비우호적 업황, 뉴스 흐름 지속: 보험 업종은 w-w 1.5% 하락하며, KOSPI 대비 언더퍼폼. 1분기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음 흐름을 보여주고 비우호적인 업황을 여실히 반영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 5부제 할인 특약 등 가격 규제 우려 또한 투자 심리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보험사의 턴어라운드를 모색할 수 있는 이벤트로는 1) 도수치료 관리급여 등 실손 통제 정책의 타임라인 일정 내 도입(현재 7월 예상) 및, 2) 회사별 신계약 매출 축소에 따른 사업비 예실차 축소 및 CSM 경험조정 축소 등임. 다만, 이러한 지표들은 빨라야 하반기 관찰이 가능한 만큼, 긴 호흡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21) 돈빌리기 어려워진다 - 은행권 2Q 가계대출 문턱 상향** - 한국은행은 21일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 가계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주택관련 및 일반 모두 강화 전망. 반면, 가계대출 수요는 전분기대비 상승. 이는 생활 자금 및 투자 자금 수요 지속 등에 기인. - 기업대출은 대기업이 11에서 3으로 완화, 중소기업은 3에서 0으로 전분기 수준 유지. 기업대출 수요는 유동성 확보 수요 늘며 모두 증가 전망. - 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전반에서 증가 전망.	**Sellers' market 지속 - 은행 건전성 및 NIM에 긍정적 영향 기대:**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대출 시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sellers market이 지속됨을 시사. 즉, 은행들의 대출 공급은 은행들의 RWA및 자산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반면, 현재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계는 물론 기업들도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물론, NIM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기여 기대.
	(4/22) KB금융, 국책은행과 4.9조원 규모 안마도 해상풍력 추진 - KB금융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이어 총 사업비 4.9조원 규모의 안마 해상풍력 사업 PF 주선에 참여. - 해당 사업은 KB금융이 참여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보다 규모가 큼. 신안우이는 3.4조원 규모, 390MW 발전 용량인 반면, 안마 해상풍력은 532MW에 4.9조원 규모. - KB금융은 대규모 인프라 금융 주선 통해 생산적 금융 목표 조기 달성 기대.	**생산적 금융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시작:** 올해 들어 대형 금융그룹들의 생산적 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와 달리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행. 대형 금융그룹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주선 등을 담당. **점차 중소기업으로 온기 확장 기대:** 현재 생산적 금융은 대기업 중심이지만, 이에 따른 온기는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형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의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 **1Q 대기업 대출 중심 성장에서 점차 중소기업 대출 성장률 상승으로 기대:** 결국 1Q 중 은행 대출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이었으나, 점차 중소기업들의 대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 과정에서 위험가중치 및 NIM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
	(4/22) 하나금융 생산적 금융 목표 60% 달성 - 하나금융이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생산적 금융 연간 공급 목표의 60%가량을 집행. 동사 올해 목표액은 17.8조원으로 이 중 약 10.4조원을 집행. 참고로, 이는 은행 대출과 계열사 투자를 합한 수치이며 하나금융만이 유일하게 50%를 상회. - 하나금융의 1Q 생산적 금융 집행액 중 약 90%가 하나은행의 몫. - 동사는 하반기 평가 체계도 일부 수정 계획. 첨단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 여신 취급 시 평가 가중치 1.2배를 적용 예정. -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간의 기업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음을 우려.	**건전성 우려는 시기상조:** 생산적 금융은 현재까지 대형 프로젝트 혹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 실제로 이는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에서 확인 가능. 즉, 건전성 우려는 시기 상조로 판단. **연간 이자이익에 초점 - 연초 성장이 연간 이자이익 증가에 유리:**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연초에 성장을 앞당기는 경향을 보임. 은행의 이자이익은 대출 자산에서 창출되는데 이를 연초에 앞당기는 것이 연간 이자이익 증대에 보다 유효한 방안이기 때문. **추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에 초점:** 목표 달성률이 높은 만큼, 이는 향후 생산적 금융 투입 시 보다 선별적으로 접근할 여력이 커졌음을 시사. 가령, 추후 매크로 환경 및 경쟁 구도 변화으로 비우호적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4/22)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 한도 상향 - 금융당국이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들에 4~5%라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 이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 미마능로 제한한 것에 비하면 느슨한 기준. 인터넷은행들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가계대출 관리 방침을 전달. - 지방은행에 이와 같은 한도를 부여한 것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지역에 자금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 더 나아가,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아 실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지방은행 전략적 여력 확대 관점에서 긍정적 판단:** 이러한 정책은 지방은행들의 전략적 대응 여력의 확대 관점에서 긍정적. 당초 시중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확대는 지방은행들의 기업 여신에 대한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었음. 하지만, 지방은행은 보다 균형 성장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가계대출 과열? 가능성 낮은 반면 오히려 최근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초점:** 지방은행들에 가계대출 성장여력이 확대되더라도 과열 가능성은 낮음. 이는 금융당국의 언급과 같이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 이보다는 오히려 최근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초점 필요. 즉, 과거 가계대출은 NIM 하락 요인이었던 반면, 현재는 오히려 NIM과 RWA, 즉 RoRWA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23) 뛰는 은행에 나는 증권 - KB, 신한 또 최대 실적** -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올해 1분기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NIM 확대 등으로 인해 이자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역대급 증시 호황으로 비이자이익까지 급증한 덕분. - KB증권과 신한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3,478억원 및 2,884억원으로 각각 91.4% 및 167.3% y-y 성장. - 양사 모두 증권사 순익 비중이 10.7%에서 18.4%로, 7.2%에서 17.8%로 확대.	**머니무브? 은행은 오히려 호실적:** 연초 머니무브로 인해 은행들의 예금 이탈, NIM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컸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은행주는 피해주, 증권주는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접근도 부각. 하지만, 은행들의 1Q 실적은 이러한 논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음. 은행들의 수신은 늘었고, 핵심 예금 성장으로 NIM 은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이자이익은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 **은행에서 금융그룹으로 초점 변화 필요:** 은행들은 이미 십수년 전에 금융그룹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은행'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고 판단. 하지만, KB와 신한은 업계 내 중상위권에 위치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근 머니무브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 은행의 고객 기반의 활용 혹은 다양한 계열사간 연계를 통해 플러스 알파 창출 가능. KB금융의 경우, 1Q 중 비은행 이익기여도가 40%를 넘어선 가운데, 오히려 최근의 머니무브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가능. **비은행 부문 역량 강화 금융그룹에 초점:** 결국 비은행 부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그룹에 보다 초점이 필요. 특히, 현재까지의 국내 금융사들에 있어 자산관리는 여전히 상품 판매에 가까운 만큼, 추후 금융 계열사들의 역량을 조합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보다 초점 필요.
	(4/24) 홍콩 ELS 과징금 결국 다음 달로 연기 -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5월로 연기. 금융위는 추가 감경 폭을 놓고 3개우러째 고민. 이는 과징금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자율배상 노력을 인정해 과징금을 깎아야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은 부담 요인이기 때문. - 은행들은 즉각 소송에 나설 채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 이미 금융회사가 최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상황에서 이번 건까지 패소 시 당국 신뢰도 훼손 우려가 제기 가능. - 차기 안건 소위는 5월 7일로 예정. 정례 회의는 5월 13일.	**ELS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 유효:**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대한 요구는 물론 최근 매크로 리스크의 확대 등은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니즈를 높이는 요인.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증대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및 실적 부담 악화는 오히려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가능. 결국 당위론적으로 과징금의 취지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 제고와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향후 관건. **은행들은 추가적인 충당부채 적립:** KB와 하나금융은 1Q 중 관련 충당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 이로 인해 관련 부담을 더 완화시켜 놓은 만큼 관련 부담은 일부 완화해 놓은 상황.
	(4/24)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에 1조원 유상증자 -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에 1조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한다고 공시. 이번 증자를 통해 증권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그룹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것. - 한편, 동사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7년 중 종투사 라이선스 요건 3조원 충족을 위해 추가 증자 가능성을 언급. 이는 금번 1조원 증자에도 불구, 여전히 자본은 2.2조원으로 3조원까지는 일부 gap이 존재하기 때문.	**증권사 강화는 필요 - 다만, 시간은 소요 불가피:** 최근 금융그룹들의 입장에서 증권사 강화는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 이는 단순히 증시 호황의 이슈가 아니라, 결국 증권사의 투자 역량 등 다양한 기능 확대를 통해 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과거 은행계 증권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증자만으로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음. 이는 수익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 **우리금융의 증권사 증자 - 성장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행 관점에서 접근 필요:** 우리금융 또한 이를 인지, 라이선스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가 수반될 것임을 언급. 다만, 우리금융은 1Q 중 CET-1 비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13.6%까지 단숨에 제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가능.
	(4/24) 우리금융, 동양생명 잔여 지분 주식교환 실시 결의 -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대신 주식교환을 선택. 이후 완전 자회사화하고 ABL생명과의 합병을 검토 예정. -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 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이며, 7월 24일 승인 절차를 거쳐 8월 11일 주식교환 진행. 신주는 8월 31일 상장 예정.	**속도감 있는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및 ABL과의 합병 필요성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제기되었고, 우리금융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다만, 시점과 방식이 이슈였는데, CET-1 비율의 제고로 인해 해당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생보사 조기 통합 및 실적 강화까지 - 다만, 실적 개선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 결국 필요한 것은 생보사 조기 통합과 더불어 실적 강화에 대한 확인. 다만, 실적 개선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올해는 주식교환 및 통합 과정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즉, 해당 event를 올해 실적 개선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 비은행 부문의 강화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4/23) 코스피 사상최고 경신·신용융자 35조 사상최대…증권사 한도 제한 잇따라** 코스피가 4월 23일 장중 6,500선을 돌파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반도체 랠리 견인). 이에 맞물려 신용융자 잔고가 3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경신(3월 초 33.7조원 고점 돌파). 증시 반등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 급증에 미래에셋(알테오젠·하이브 등 20종목 종목군 E→F 변경), 카카오페이증권(한도 소진으로 신규 신용융자 중단), 토스증권(일부 종목 증거금률 100% 상향) 등이 제한 조치 시행.	**신용융자와 자본 수준 간 확대 속도 관찰 필요:** 발행어음·IMA 사업 확대 및 레버리지 수요 충족은 증권사별 자기자본 증대 유인을 강화 시키는 핵심 유인. 한편, 신용융자 과열에 따른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차별화는 향후 건전성 지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만큼, 회사별 신용공여 기준 현황을 면밀히 점검 필요.
	(4/22) 발행어음 5년새 3.5배·IMA 더해 모험자본 1분기에만 10조 공급 발행어음 잔액이 최근 5년 사이 3.5배로 성장, IMA까지 가세하며 1분기 한 분기에만 모험자본 10조원이 공급. 4월 기준 고객예탁금은 120조원을 넘어섰고, 증권사로의 머니무브 규모가 1분기에만 4.7조원을 기록. 53조원 규모의 IRP 시장에서도 증권사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미래에셋 독주, 삼성·한투 2위 경쟁 치열). AI 활용 퇴직연금 운용으로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YoY 49% 급증.	**증권사 수익 기반 점진적 확대:** 발행어음·IMA·IRP·ISA 등 다양한 수신형 상품 라인업 확대는 수익원 다각화 및 안정적 이자·운용수익 기반 강화로 연결. 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증권사들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IB 딜 소싱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IMA, 퇴직연금 등은 장기성 자금으로 증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회사별 점유율 경쟁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
	(4/24) 금융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공모주 상장 후 주가급락 방지 금융위원회가 상장 후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발표. 코너스톤투자자는 IPO 시 일정 지분을 사전 확약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통해 상장 초기 물량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기 투자 기반 기관투자자. 이를 통해 최근 우려된 기관 물량 조기 출회에 따른 상장 직후 급락 패턴 개선 및 IPO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 국민성장펀드 3년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도 병행 추진.	**증권사의 IPO 비즈니스에 긍정적:** 장기 보호예수 기반의 기관 참여 확대는 공모가 산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대형·우량 IPO 딜 발굴 및 주관 수요는 더욱 확대 가능. 코너스톤 제도가 정착될수록 자본력을 확보한 주관사 중심의 대형 증권사에 중장기 IB 경쟁 우위 확대로 이어질 것. 한편,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혜택 병행은 중장기 투자 문화 확산 및 증권사로의 자산 유입 수단으로 긍정 요인.
보험	**(4/24) 도수치료비 '4만원대' 상한 관리급여 7월 시행…연 15회 초과 시 병원 보험금 불지급**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4만3천원으로 상한 고시 예정. 연간 최대 15회(특수 수술 후 경우 2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 초과 시 의료기관 보험금 청구 불가. 기존 비급여는 횟수·가격 제한 없이 의료기관이 자율 산정해왔으나, 관리급여로 수가·횟수가 통제. 의협은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 중.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시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과거 연 350만원·50회 한도였던 비급여 보장이 연 15회·4만원 수가로 대폭 축소, 상위 가입자 보험금 남용 구조 개선에 효과적일 전망. 다만, 의협 등 이해단체 반발로 수가 협상 지연 불확실성 존재하여 최종 확정 시행 일정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 현실화 시 보험사의 실손 부문 CSM·이익 개선 속도 가속화 기대.
	(4/23) 1Q26 자동차보험 손해율 85.2%…5부제 할인 특약 5월 출시 예정에 손보사 '이중 부담' 5개 주요 손보사 1Q26 자동차보험 단순 평균 손해율 85.2%로, 전년 동기(82.5%) 대비 2.7%p 상승하며 손익분기점(80%) 대폭 상회. 4개사 기준으로는 85.9%(YoY +3.4%p)로 집계. 올 초 1.3~1.4% 보험료 인상에도 과잉진료, 부품비·정비 원가 상승 등 구조적 손해율 악화 지속. 당정은 5부제 자율 참여 차량 대상 차보험 할인 특약을 5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	**1Q26 자동차보험 손해율 85%대는 이미 적자 구조:** 5부제 할인 특약 추가로 인한 추가 마진 훼손이 2Q 실적에도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 손보사 실적 하방 요인. 5월 출시 특약의 할인 폭 및 적용 범위에 따라 수익성 충격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 요율 확정 내용을 실적 체크포인트로 면밀히 점검 필요. 구조적 비용 증가(정비 수가·부품비·과잉 진료) 억제 없이는 보험료 인상 사이클만으로 손해율 정상화가 어려운 구조,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 모니터링 필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4-27 (월)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법안소위 상정	미국 4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중국 3월 공업이익
2026-04-28 (화)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미국 2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2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미국 4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BOJ 전망 보고서
2026-04-29 (수)		미국 FOMC 회의 발표
		미국 2월, 3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3월 내구재주문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유로존 3월 총통화(M3) 공급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일본 증시 휴장
		일본 3월 건설수주
		일본 3월 신규주택착공건수
2026-04-30 (목)	3월 산업활동동향	미국 1분기 GDP 예비치
	3월 관광통계	미국 3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4월 시카고 PMI
		유로존 ECB 기준금리결정
		유로존 3월 실업률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유로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독일 3월 소매판매
		독일 4월 실업률
		독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영국 BOE 기준금리결정
		일본 3월 산업생산(예비치)
		일본 3월 소매판매(예비치)
		일본 2월 경기동향지수(수정치)
		중국 4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국내	해외
2026-05-01 (금)	국내 증시 휴장	미국 4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4월 제조업 PMI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영국 3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영국 4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4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4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4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중국, 홍콩, 대만, 프랑스, 독일 증시 휴장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4-28 (화)	iM금융지주 실적 발표	
2026-04-30 (목)	키움증권, BNK금융지주, 케이뱅크 실적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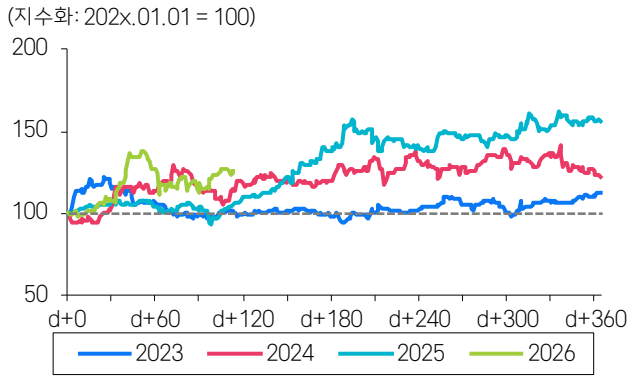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147.3	6,475.6						4.6%	14.8%	156.7%	53.7%
	KRX은행	210.5	1,633.3						(1.2%)	6.9%	85.7%	25.3%
	KRX증권	98.4	2,811.2						(1.3%)	5.0%	244.0%	83.8%
	KRX보험	99.1	3,293.1						(1.5%)	(3.2%)	86.6%	23.0%
	결제 지수**	1.605	n/a						(1.1%)	12.8%	77.9%	22.3%
은행	KB금융	58.7	157,400	57.1	1.0	11.4	8.6	12.9	(3.0%)	5.4%	86.1%	26.2%
	신한지주	47.5	100,000	53.6	0.9	10.4	8.5	15.5	0.4%	8.6%	105.1%	30.0%
	하나금융지주	33.8	123,300	50.8	0.8	10.6	7.6	12.3	(0.2%)	13.4%	102.8%	31.0%
	우리금융지주	25.7	35,050	44.5	0.8	10.6	7.3	12.1	(1.8%)	6.2%	103.8%	25.2%
	기업은행	17.8	22,350	36.0	0.6	8.5	6.9	2.2	(0.9%)	(4.5%)	50.5%	6.7%
	BNK금융지주	5.9	19,000	45.1	0.5	8.3	6.7	9.5	(0.8%)	3.0%	79.2%	19.7%
	JB금융지주	5.4	28,700	42.2	0.5	9.5	5.7	21.9	(7.4%)	(3.2%)	61.0%	11.9%
	iM금융지주	3.1	19,100	51.8	0.9	13.2	7.2	6.6	2.1%	12.5%	97.3%	22.8%
	카카오뱅크	12.1	25,300	50.0	1.6	8.8	19.5	29.1	(0.2%)	3.1%	16.3%	17.1%
증권	미래에셋증권	37.4	66,900	60.9	2.7	12.9	22.0	17.5	(5.0%)	(0.6%)	553.6%	187.8%
	NH투자증권	12.5	35,100	41.1	1.4	12.9	11.2	14.9	(0.6%)	2.3%	146.7%	66.4%
	한국금융지주	14.4	259,000	25.0	1.2	14.2	9.7	-19.1	0.8%	17.5%	235.1%	60.2%
	키움증권	11.8	449,500	29.5	1.6	20.7	9.0	26.4	0.3%	4.1%	252.5%	55.3%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2	114,500	50.0	1.7	22.8	8.2	14.9	(2.7%)	2.8%	(3.7%)	1.2%
	삼성화재	20.4	456,000	45.1	1.0	10.1	10.9	12.0	(5.0%)	(6.9%)	26.0%	(8.2%)
	삼성생명	48.9	244,500	46.3	0.6	3.7	15.9	17.8	(3.6%)	7.5%	194.9%	55.1%
	DB손해보험	11.5	175,000	32.3	1.1	16.6	6.6	9.0	1.0%	(10.1%)	99.3%	33.5%
	한화생명	4.3	4,965	16.4	0.3	5.6	6.3	37.8	1.3%	(0.1%)	94.3%	52.5%
	현대해상	2.6	30,550	11.7	0.5	17.5	3.3	18.3	0.5%	(5.0%)	46.2%	(0.8%)
결제	카카오페이	7.5	55,300	n/a	n/a	5.6	74.4	57.5	(2.5%)	2.4%	81.6%	12.6%
	NHN KCP	0.8	20,050	n/a	n/a	17.2	14.4	16.1	(1.7%)	16.7%	155.1%	34.5%
	KG이니시스	0.3	11,250	n/a	n/a	7.5	5.1	5.5	(2.3%)	9.0%	29.0%	10.1%
	KG모빌리언스	0.2	5,360	n/a	n/a	10.7	5.2	8.1	(1.3%)	7.6%	26.3%	14.0%
	나이스정보통신	0.3	28,650	n/a	n/a	9.2	6.0	29.7	2.0%	10.4%	54.9%	13.0%

참고: 4/24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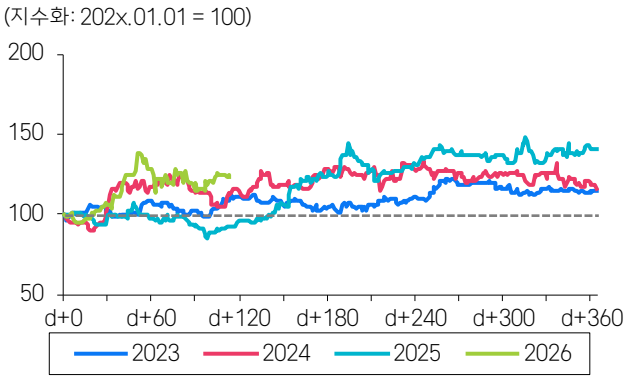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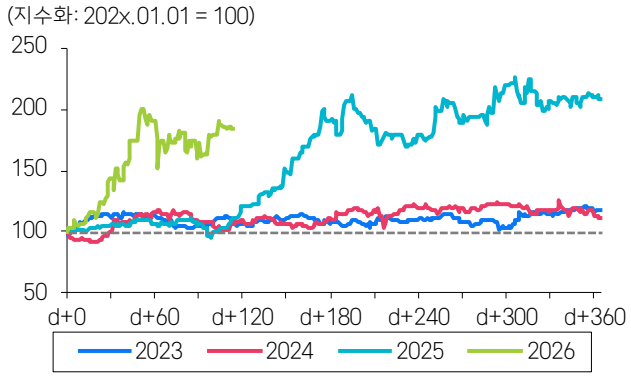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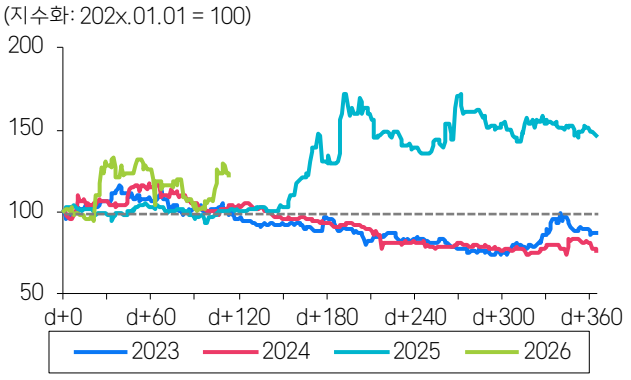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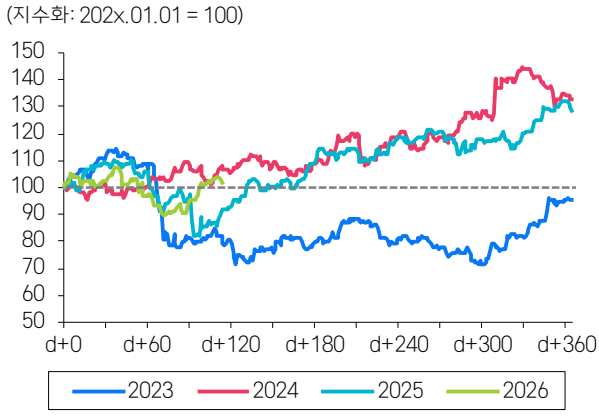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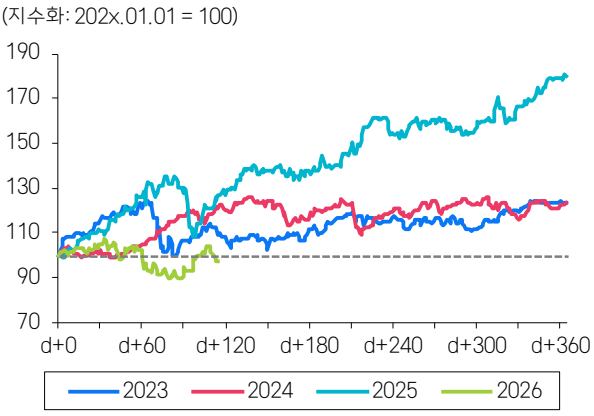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26.9	80.4	2.3	17.0	13.8	11.2	(0.6)	5.7	26.6	(4.3)
		Bank of America	371.9	103.6	1.3	11.6	11.7	16.9	(3.5)	7.9	31.1	(5.4)
		Citigroup	219.5	117.0	1.1	9.6	11.8	54.7	(3.2)	13.9	87.0	9.7
		Wells Fargo	243.4	96.4	1.4	12.8	11.4	11.5	(2.4)	0.5	13.9	(14.8)
		PNC Financial	88.4	74.8	1.4	12.7	12.0	10.7	(2.2)	7.0	38.7	5.3
	유럽	Banco Santander	175.4	64.6	1.4	13.5	9.7	9.6	(7.6)	8.5	58.9	1.3
		Unicredit	113.0	82.4	1.4	16.7	8.7	4.9	(10.9)	6.3	25.8	(9.7)
		BBVA	122.6	86.0	1.8	18.8	9.2	15.2	(8.5)	3.7	49.2	(7.3)
		ING Group	81.5	79.9	1.3	13.1	10.3	6.8	(3.3)	9.8	42.3	0.0
		Lloyds	77.4	85.3	1.3	13.4	10.2	43.2	(7.0)	5.9	33.9	(0.5)
		Barclays	78.4	65.3	0.8	10.6	9.1	20.0	(6.3)	10.0	44.8	(10.9)
	일본	Mitsubishi UFJ FG	205.0	59.7	1.5	10.9	14.0	22.9	(4.0)	1.5	58.8	10.5
		Sumitomo Mitsui FG	128.3	53.7	1.3	10.8	12.8	38.3	(4.5)	1.9	62.5	6.1
		Mizuho FG	98.4	67.1	1.4	11.4	13.2	39.0	(5.0)	0.8	84.2	12.8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9.5	30.3*	0.6	9.1	7.0	3.1	3.3	9.7	32.7	15.4
		China Construction Bank	304.8	29.9*	0.6	9.4	6.8	0.7	3.1	10.6	31.2	16.4
		Agricultural Bank of China	353.2	30.8*	0.7	9.7	7.7	3.6	2.3	15.1	31.4	7.1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12.7	N/A	1.3	6.0	22.5	(32.6)	(1.0)	(1.1)	(11.4)	(6.6)
		AIG	40.2	76.9	0.9	10.1	10.0	흑전	(4.5)	1.2	(7.5)	(12.2)
		Travelers Insurance	64.4	78.7	1.8	18.5	10.6	3.8	0.6	4.0	16.8	4.4
	유럽	Allianz	172.8	80.8	2.3	18.5	12.6	11.4	(0.5)	10.6	8.0	(0.6)
		AXA	100.4	59.4*	1.8	17.1	10.1	(10.2)	(3.7)	8.1	1.1	0.2
		Generalli	68.8	59*	1.7	14.0	12.3	11.4	1.0	13.0	18.6	6.0
	일본	Tokio Marine	87.0	40.3*	2.6	19.7	13.4	(1.1)	3.5	(4.5)	28.9	23.4
		Daiichi Life Insurance	32.0	58.8	1.4	12.4	12.3	(0.8)	(3.4)	(2.6)	42.8	8.2
	중국	Ping An Insurance	148.1	35.8*	1.0	14.0	7.6	4.7	0.6	2.8	32.6	(6.4)
		China Life Insurance	137.9	20.2*	1.1	19.8	6.0	(17.3)	(2.1)	8.6	94.0	(0.8)
		PICC P&C Insurance	40.3	38.1*	1.0	13.7	7.6	2.7	(1.5)	(4.0)	1.4	(13.1)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4.1	107.5	2.5	16.3	15.6	15.7	0.1	12.7	70.1	5.5
		Morgan Stanley	297.2	73.1	2.7	17.6	15.9	16.2	(0.4)	15.2	62.1	5.9
		Charles Schwab	158.3	99.2	3.3	23.4	15.2	25.1	(4.1)	(6.3)	10.7	(11.4)
		Robinhood	76.3	44.3	7.2	20.4	40.2	2.8	(6.7)	20.4	71.3	(25.1)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4.3	79.2	6.2	34.7	17.8	14.6	(5.3)	4.9	18.6	(15.1)
결제	미국	VISA	604.0	21.7*	14.6	60.6	24.4	24.2	(2.4)	1.3	(7.7)	(11.8)
		MasterCard	449.7	17.6*	41.0	191.9	26.0	17.4	(3.3)	0.7	(5.5)	(11.7)
		PayPal	45.4	5.5*	2.2	23.0	9.7	(3.9)	(0.6)	11.7	(22.7)	(13.5)
	유럽	Adyen	36.0	0*	4.7	21.3	24.7	17.2	(1.0)	14.0	(33.5)	(29.1)
핀테크	미국	Block	42.6	0*	1.8	9.6	23.1	47.4	0.5	20.7	23.3	10.0
		Upstart	3.2	N/A	3.6	20.7	32.1	131.7	(3.1)	32.2	(31.2)	(23.4)
		Affirm	21.2	0*	5.1	10.4	58.6	624.7	(1.2)	45.3	29.8	(14.4)
	중국	LuFax	1.7	N/A	0.0	N/A	(0.7)	흑전	1.6	1.6	(38.5)	(25.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4/24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